

##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한다

-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기구로 정보 공유 및 대응 예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27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컨설팅 테이션 그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TNFD)\*’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글로벌 이니셔티브)’화되고 있다.

\*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자연자본 관련 재무 공시를 위해 설립된 협의체로서 1,700여 개 금융기관, 기업 등이 가입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에 설립됐던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와 별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 환경부는 산업계와의 공통 인식 아래 자연자본 공시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24년 3월 결성(23개 기업 포함 31개 기관 참여)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하며,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www.kbr.go.kr)에서 가입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연합에 가입하고, 관련 정보를 얻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원 31개 기관은 이날 5차 회의에서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환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엠에스앤에이디(MS&AD) 보험그룹과 노린추킨 은행에서 자국의 자연자본 공시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운영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와 3개 지역(호주·뉴질랜드, 아세안, 노르딕 국가)\*에 이어 19번째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브라질,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케냐, 네덜란드, 노르딕(덴마크 등 북유럽 5개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연자본 공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자연자본 공시 동향.  
2.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설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현세환 (044-201-7231)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재신 (032-590-7171)
		담당자	연구관	이재호 (032-590-7210)

□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출범**

-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영향, 의존도,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을 장려하는 이니셔티브('21년 6월 공식 출범)

※ (명칭)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NFD)

- TNFD의 최종 권고사항 발표('23.9) 이후, 분석법, 산업분야 및 생물군계별 지침 등에 관한 20여 개의 추가 안내서 발간 중

□ **TNFD 관련 국내외 기업 참여 동향**

- TNFD 포럼에 70개국 1,737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553개 기관이 TNFD 지침에 의한 보고서 작성 착수
- 우리나라는 25개 기업을 포함한 34개 기관이 TNFD 포럼에 가입하고, 자연관련 공시를 준비 중

<국내 TNFD포럼 가입 기관 >

유형	기관명
금융기업/기관	하나금융, KB금융, 삼성생명보험, 신한금융그룹,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 우리금융, DGB금융그룹, 한화생명보험, 에이치엘비(11)
비금융기업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네셔널, SK그룹, SK 네트웍스, SK텔레콤, KT&G, 한전KPS, 고려특수선재, 데이터톡, Hello Trees, (주)이마트(14)
공공기관/협회	국립생물자원관, UN SDG협회, 국제ESG협회, 서울시립대, 한국생산성본부, 국립생태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SDG 연구소(9)

□ **자연 관련 ESG 공시 국제 동향**

-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공시(IFRS S2) 기준 발표('23.6) 및 2년 이내 공시기준에 생물다양성 포함 발표('24.1)

\*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기관으로, 해당 기준이 강제성은 없으나 140개국 이상이 국제회계기준(IFRS)의 재무보고 기준을 채택 중, 공신력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 높음

- 유럽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개정안('23.7) 내 환경분야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포함

**□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TNFD Consultation Group) 개요**

-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가 제공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지역 및 국가별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논의체
- 기업,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TNFD의 권고안 및 각종 가이드선스 관련 이해를 돕고 자연자본공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
- TNFD와 소통하며 각국의 규제 및 기업환경을 고려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
- 주관자(Convenor)가 연합의 중심이 되어 관련 활동을 주도

**□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현황**

- 미국, 일본 등 17개 국가와 1개 지역(아세안) 연합이 등록되어 활동 중
  - ※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아세안, 브라질,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케냐, 네덜란드, 노르딕,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 주관자(Convenor)로 보통 기업협의체, 회계협의체, 연구소 등이 단독 혹은 합동으로 활동
- 국가별 그룹의 주관자를 통해 그룹에 가입하며 TNFD는 그룹 가입 전 TNFD 포럼 회원으로 먼저 가입할 것을 권장

**□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운영**

-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주관자로서 회원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관리
- TNFD에 관심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가 가능
- 정부-산업계 소통 창구와 정책 논의기구로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는 기존 그대로 별도 운영

※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원: SK하이닉스, 삼성생명, KT&G, SK텔레콤, IBK기업은행, 삼성전자, 삼성카드, 포스코이앤씨, 포스코경영연구원, SK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타이어, KB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율촌법무법인, 김앤장, 대한상공회의소, KBCSD, 포스코, LG화학, 한미사멘트(주), 삼성화재, 법무법인 화우, NH농협금융지주, 국립생태원